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⑭ 광주시 문화관광 해설사들

‘방문의 해’ 성공 이끌 ‘광주의 얼굴’

강의·현장실습 교육 후 올 활동 본격 시작
주말·휴일 하루 9시간씩 외지인 관광 안내
英·中·日, 외국어 전문 해설사도 곧 모집

“광주·전남 방문의 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빛고을 문화유산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광주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시 소속 문화관광 해설사 54명은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시가 최근 광주관광협회에 위탁실시한 ‘2008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에 참가,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광주 만들기’를 다짐했다. 광주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주말과 휴일 자신이 맡은 문화 유산의 현장에서 하루 9시간씩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 홍보대사’들이다.

이들은 광주의 문화유산 해설에 관한한 전문가들이지만,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계기로 마련된 특별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광주 알림이’로서 각오를 새롭게 했다.

정예 문화유산 해설사들인 이들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시청각실 및 증심사, 충장사, 원효사 등 광주권 관광지에서 이뤄진 현장실습과 이론 교육을 통해 관광 광주의 전도사로서 새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에는 주인택 광주민속박물관 학예실장, 이종일 남구 문화원장, 조인호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강사로 나서 문화관광 해설사들과 광주문화 현장을 누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친절 및 미소교육’ 등 기본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들의 강의와 현장실습이 병행되는 등 문화관광 해설자들의 기본자세를 점검하고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동신대 김성후 교수의 ‘문화관광 해설사의 자세와 역할’, 이종일 남구문화원장의 ‘문화유적으로 본 광주의 역사’, 박해구 광주시 관광과장의 ‘광주 관광현황과 과제’ 등 모두 17개 강의와 현장실습으로 짜여졌다.

강의 참석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뒤 모임을 갖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유산 강좌에 스스로 참여키로 하는 등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충장사에서 4년 동안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용숙(60)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광주를 외지인들에게 소개하는 문화관광 해설사로서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현장에서 외지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새로운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들 문화관광 해설사들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 오는 12월 21일까지 주말과 휴일에 무등산 증심사, 충장사, 시립민속박물관, 국립 5·18 민주묘지, 광주향교, 포충사 등 14개 관광지에서 현장활동을 펼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문화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 문화관광 해설사 20여명을 신규 모집,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들의 광주 관광을 돕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외국어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도 함께 모집한다.

이들은 4월 중 교육을 마친 뒤 증심사, 충장사, 원효사, 경열사, 충효동 도요지, 국립광주박물관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할이 큰 만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8 문화관광 해설사 교육’에 참여한 광주시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광주 충장사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특별기고

박 해 구

U대회를 ‘광주관광’ 도약 계기로

현재 광주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민들의 유치기원 서명도 150만명을 넘어섰으며, 거리엔 온통 유치 기원 홍보물로 넘쳐나고 있다. 대망의 5월 31일 U대회 유치가 확정되면 1조5천억원의 경제효과와 3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170여개국에서 선수와 임원들이 광주를 방문하게 되고 전 세계에 경기 장면이 중계됨으로써 광주는 국제도시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다. 광주와 전남의 관광은 딱히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광주에 오면 전남 지역을 방문해야 하고 전남을 가려면 광주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광주의 관광 현실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필자는 지난 3월초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경, 심양, 성도, 상해 등 주요 도시를 순회 방문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곳에서 현지 여행업계, 언론사, 시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광주관광을 홍보하고 상품을 판촉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참으로 많은 분야에서 지역관광 관련 업계와 협력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돌아왔다.

이번에 만난 중국 관계자들은 관광객은 얼마든지 보낼테니 중국 심양 및 성도공항과 광주공항간에 전세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광주와 제주간 항공좌석 확보 및 한국내 인바운드여행사를 위해 호텔, 음식점, 관광버스 등의 이용료를 관광 선진 도시 수준으로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외국 현지와 직항로선을 개설하여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광주는 중국과의 항공노선이 일주일에 상해 2편(대한항공), 북경3편(아시아나)에 불과하고 중국항공(동방, 남방)은 무안으로 취항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무안공항까지 전세기로 관광객을 싣고와서 다시 관광객을 태우고 나가야 하는데 광주권을 제외한 전남 동부나 전북지역에서는 출국시 접근성을 이유로 청주나 김해공항을 이용함으로써 탑승객이 적어 취항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여행업계에서는 여행상품간 1만원 차이 때문에 관광객을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해외 직항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을 탓하고만 있을 수 없다. 제반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노력대로 해나가면서 현재는 현재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앞으로 광주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일본, 미주 등지의 해외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광호텔, 버스·음식업계 관계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용요금을 관광선진도시 수준으로 맞추는 등 수용역량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또 외국어가 능통한 관광가이드를 양성하여 이를 통한 지역인바운드여행사를 육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국토 서남권관광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어등산 관광단지, 역사문화마을, LED를 이용한 빛의 터널조성사업 등을 국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광과장〉

광주시 관광과 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29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관광홍보물을 나눠주며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